

치 사

만물은 소생하고 불자들은 행복이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로 오신 뜻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 깊은 시기에 여러분이 종덕과 현덕 법계를 품수받게 되어, 축하와 격려의 마음은 더욱 깊습니다. 오늘의 의미는 발심출가한 뒤 불퇴전의 원력이 이룬 결실이기에, 종단과 종도 모두의 성취로 다가옵니다.

2001년 법계제도가 현시대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마련되었고, 종단이 최초로 시행한 1급 승가고시를 통해 종덕, 현덕 법계를 품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품서식은 종단이 추구하고자 했던 수행력과 지도자의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선대의 덕화에 의지해 왔다면, 이제는 그간의 성취를 보여줘야 하는 지위에 들어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종덕, 현덕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접하고 마음속에 느꼈던 감동, 그 열렬하고 생생한 초심이 스스로의 성취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학을 바르게 안내하고 참진리를 사회에 전해야 하는 책무로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품수하는 법계가 수행력과 지도력을 보여주는 관문과도 같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불교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종단적으로도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하는 것은 물론, 참신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법계의 위상에 따라 종단과 종도의 뜻을 읽어가며, 사회와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모범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는 곧 저마다의 서원을 현시대에 실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혜를 다지고 자비를 실천하며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수행정진을 이루고, 전법교화의 중심이 되어 불교중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주길 바랍니다. 종단은 여러분의 수행과 교화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법계품서를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신 법계위원 스님과 고시위원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종덕·현덕 법계품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년 05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